

축사

충남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대전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 곳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 전임 총장님들, 현 이진숙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충남대학교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 등에 따른 지역인재의 유출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며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이 긴급한 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와 대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련성을 맺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대학 간 연계와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역 밀착형 인재 육성과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개교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교'를 '비전 2050'으로 발표하며 미래 100년 대학을 향해 새로이 힘찬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K-Edu 대표 대학',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 '지역 성장주도 혁신대학', '초광역 캠퍼스 완성' 등 4가지 목표가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다가옵니다.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은 대덕연구단지와의 협력방안을, '지역 성장주도 혁신대학'은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상생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대전시 차원에서도 뜻깊은 일입니다. 앞으로 대전시와 충남대학교의 협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충남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충남대학교가 '비전 2050'에 걸맞게 우리나라 대표 국가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국가발전의 중심점이 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7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축사

충남대학교의 개교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이진숙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로 거듭날 재학생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충남대학교는 창의, 개발, 봉사의 교육이념 아래 1952년 개교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학문 발전을 선도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사명은 대학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충남대학교는 2년 연속 거점 국립대 취업률 1위를 달성하고, 15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외에도 AI와 SW 분야 특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충남대학교는 지역 거점대학이자 중부권 최고 대학으로 우뚝 섰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오늘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탄탄한 내실을 다졌기에 가능했습니다. 충남대는 단순 교육 기관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각종 장학금 혜택을 높이고 470개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두터운 학생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취업·창업 교육 운영 등 지역의 인재들이 성장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후원하고, CNU 시크릿 버스를 운행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그리고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충남대학교가 되길 기대합니다.

「충남대학교 70년사」가 충남대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앞으로 미래를 밝혀 줄 소중한 자료가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역사회 속에서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충남대학교가 이룩한 70년의 역사를 넘어 또 다른 70년의 시간이 쌓이길 기대하며, 충남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충청남도 도지사 김태흠



축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먼저 충남대학교 개교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남대학교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개교 이래 지난 70년 동안 굳건한 뿌리를 내리면서 학문 발전을 선도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양성 요람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충청권의 대표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충남대학교 교직원, 학생, 동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충남대가 개교 70주년이자 세종시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충남대와 세종시는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하며 지역혁신과 동반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행복도시 내 첫 대학병원으로 문을 연 세종충남대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힘을 모았고 진료, 교육, 연구, 공공보건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세종시 대표 의료기관으로 안착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및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등 지역혁신 선도사업을 수행하며,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충남대 세종캠퍼스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캠퍼스 시대를 맞아 미래전략 수도 세종에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등 혁신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 100년 대학으로서 제2의 도약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 개교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충남대학교가 '비전 2050'에 걸맞게 우리나라 대표 국가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국가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축사

자랑스러운 충남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대전교육가족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충남대학교를 최고의 선진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키고 '충남대학교 70년사'를 발간하신 이진숙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 재학생과 동문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대학교 70년사'는 1952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와 함께하며 최고의 국립대학교로 성장한 과정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발전과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충남대학교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은 충남대학교의 자긍심인 동시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지성과 학문의 전당으로서 동반 성장의 기치 아래 지역 경제의 동력이 되고 지역 문화를 선도해 온 충남대학교 교육 가족의 지혜와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충남대학교가 세계 대학들과 어깨를 견주는 일류 대학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대학 교육의 역사를 일구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학교 발전에 공헌해주신 충남대교육가족 여러분께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충남대학교가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가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연구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일류 명문 대학으로 발전해나가는 데 '충남대학교 70년사'가 유용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충남대학교가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명문 대학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축사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충남대학교 개교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남대학교는 1952년 개교 이래 일두일미(一斗一米),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명실상부 충남의 큰 자량이 되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1951년 5월 전시연합대학으로 시작하여 '충남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응할'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창립 당시 기성회를 주축으로 각계 유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3백만 도민의 모금운동으로 도립 충남대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즉 충남대학교는 충남도민의 정성이 가득 담긴 모금으로 설립된 충남의 금자탑이며, 전 도민의 의지가 깃든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충남대학교는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창의·개발·봉사정신이 풍부한 지도적 인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이념을 통해 충남교육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 학교의 발전은 단순히 단위 학교의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요, 국민들의 수준을 높여주는 일에 참여하는 뜻깊은 일입니다.

아울러, 학교의 역사와 교육활동, 성장 과정이 담긴 '개교 7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힘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걸어온 길을 잘 살피면 갈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개교 70년사 발간이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가교, 미래를 여는 창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100년을 향해 밝은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의 동량(棟梁)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장하는 학생, 발전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충남교육감 김지철

축사

충남대학교 개교 70주년을 온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한국전쟁 시기에 전시연합대학으로 문을 연 충남대학교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역사적 변곡점마다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총대인들은 우리 지역에서 엄혹한 시기에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지역을 이끌고 발전시키는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냈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충남대학교 공동체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낸 충남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도전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촛불혁명으로 더욱 높아진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우리나라를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재를 요구합니다. 인공지능으로 할 수 없는 융합과 통섭의 역량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 민주시민으로서 소통하고 참여하며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인류 공영의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열린 사고로 세계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 새로운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도 변해야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래왔듯이 충남대학교는 이러한 시기 역시 잘 준비하고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선배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을 만들고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청년의 패기와 기상으로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충남대학교의 개교 70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 국립대학교로서 충남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축사

자랑스러운 충남대학교의 발자취를 담은 '충남대학교 7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남대학교 70년사'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진숙 총장님과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김기수, 이찬용 위원장님, 70년사 편찬위원회 이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뜻깊은 70주년을 맞은 충남대학교는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상아탑을 세우고자하는 충청도민들의 열망과 십시일반의 성원을 모아 설립되었다는 아주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52년 개교 이래 70년의 해를 지나오면서 꾸준히 외연을 확장하고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첨단 융복합 교육의 선도주자로서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배출된 자랑스러운 충남대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며 모교의 명예를 빛내고 있어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대학교는 재학생, 동문, 교직원, 그리고 지역민의 헌신과 사랑으로 채워진 70년 역사를 자양분 삼아 100주년 너머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며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굳건히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대학의 비전을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발간된 '충남대학교 70년사'는 지난 역사를 반추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이루어낸 70년 역사의 방대한 데이터와 이야기가 응축된 이 한권의 책은 후대에 전해 줄 소중한 유산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전의 길에서 종종 방향을 잃을 때 열어보아야 할 훌륭한 안내서입니다.

모쪼록 '충남대학교 70년사' 발간이 대한민국을 넘어 100년을 지나 꿈을 향해 비상하는 충남대학교 새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충남대학교 구성원과 동문은 물론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소통과 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위대한 미래를 향한 출발선에 다시 선 모교의 힘찬 발걸음을 총동창회와 20만 동문이 함께 응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충남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충남대학교 총동창회장 강도묵